

방학 ... 깜짝 놀랄 PC방 풍경

초등생, 성인 어깨너머 음란물 '즐감'

회원 박모(여·45·광주시 서구 금호동)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초등학생 3학년인 아들을 데리려 동네 PC방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게임을 하고 있던 아들의 바로 옆자리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낯뜨거운 동영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10여명의 남녀 초등학생이 함께 있던 PC방에서 벼짓이 불룩까지 높인 채 음란물을 감상하고 있었다.

놀란 박씨는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아이가 있는 PC방에서 음란물을 봐도 되느냐"고 물었지만,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PC방을 찾는 어린이들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일부 성인들이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고

30대 초반 남성 불룩 높인채 성인물 감상
남녀 초등생 10여명 앞·옆에서 힐끔힐끔
종업원에 항의하자 "제지할 방법이 없다"

성인·미성년 좌석구분 규정 마련 시급

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PC방은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현행법상 성인이 PC방에서 일명 '아동'을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관련 법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현재 PC방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크게 3가지다.

PC방 측은 이를 법률에 따라 내부 공간을 출연석과 금연석으로 구분하고, 출입금지 시간(밤 10시~오전 9시)을 두거나 게임별로 이용 가능 연령을 정해 음란·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PC방에서 성인이 미성년자 바로 옆에 앉아 음란물을 볼 경우 이를 막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 법은 없는 실정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만족을 위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보여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PC방에서 여자 어린이의 옆자리에서 음란물을 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던 이모(30)씨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음란물에 대한 시청을 이

씨가 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주부 이모(42·남구 진월동)씨는 "미성년자가 직접 음란물을 보는 것과 옆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을 함께 보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PC방에서 성인이 보는 음란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소 뿐에 받하고 발길질에 채이고...

구제역 접종 농민 시련

고베에 감겨 손가락 절단도

구제역 예방접종을 돋던 농민들이 자신이 키우던 소에 의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오전 11시35분께 고흥군 포두면 상대리 최모(77)씨의 축사에서 최씨가 자신이 키우던 소의 고베에 손

이 감겨 오른쪽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다. 최씨는 이날 고흥군청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드는 과정에서 소고베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소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장흥군 관산읍 한 마을에서 주민 이모(75)씨가 백신 접종을 듣다가 자신이 기르던 소의 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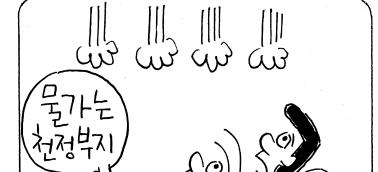
발에 차여 갑비뼈 등을 크게 다쳤다. 이씨는 이날 공무원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소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축사에서 소들을 달래던 중 주사 바늘에 놀란 소가 발길질을 하는 바람에 부상을 당했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에 의해 장흥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정오께 해남군 해남읍 기동리 이모(64)씨의 축사에서 예방 접종을 위해 소의 고베를 끌으려던 안모(52)씨가 뿐에 받혀 넘어진 뒤 소의 발길질에 눈썹이 4cm 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고흥군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모든 축산농가가 시름에 빠진 상황에서 자식 같은 소들 걸을 지키다가 사고를 당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giju@

내용참 (8226)
김종우



산림 무단 훠손 혐의
사찰주지 등 12명 검거

로-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8층 이상 고층 아파트 빙집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아파트 주인을 눌러 빙집임을 확인한 뒤 도구를 이용,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공범 중 1명은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망을 보게 한 뒤 무전기를 이용해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빙집털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C(폐쇄회

경찰)을 설치돼 있지 않은 8층 이상 고층 아파트 빙집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아파트 주인을 눌러 빙집임을 확인한 뒤 도구를 이용,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공범 중 1명은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망을 보게 한 뒤 무전기를 이용해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빙집털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C(폐쇄회

경찰)을 설치돼 있지 않은 8층 이상 고층 아파트 빙집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아파트 주인을 눌러 빙집임을 확인한 뒤 도구를 이용,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공범 중 1명은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망을 보게 한 뒤 무전기를 이용해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빙집털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C(폐쇄회

경찰)을 설치돼 있지 않은 8층 이상 고층 아파트 빙집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아파트 주인을 눌러 빙집임을 확인한 뒤 도구를 이용,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공범 중 1명은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망을 보게 한 뒤 무전기를 이용해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빙집털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C(폐쇄회

경찰)을 설치돼 있지 않은 8층 이상 고층 아파트 빙집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아파트 주인을 눌러 빙집임을 확인한 뒤 도구를 이용,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공범 중 1명은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망을 보게 한 뒤 무전기를 이용해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빙집털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C(폐쇄회

경찰)을 설치돼 있지 않은 8층 이상 고층 아파트 빙집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아파트 주인을 눌러 빙집임을 확인한 뒤 도구를 이용,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공범 중 1명은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망을 보게 한 뒤 무전기를 이용해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빙집털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C(폐쇄회

경찰)을 설치돼 있지 않은 8층 이상 고층 아파트 빙집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아파트 주인을 눌러 빙집임을 확인한 뒤 도구를 이용,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공범 중 1명은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망을 보게 한 뒤 무전기를 이용해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빙집털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C(폐쇄회

경찰)을 설치돼 있지 않은 8층 이상 고층 아파트 빙집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아파트 주인을 눌러 빙집임을 확인한 뒤 도구를 이용,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공범 중 1명은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망을 보게 한 뒤 무전기를 이용해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빙집털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C(폐쇄회

경찰)을 설치돼 있지 않은 8층 이상 고층 아파트 빙집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아파트 주인을 눌러 빙집임을 확인한 뒤 도구를 이용,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공범 중 1명은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망을 보게 한 뒤 무전기를 이용해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빙집털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C(폐쇄회

경찰)을 설치돼 있지 않은 8층 이상 고층 아파트 빙집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아파트 주인을 눌러 빙집임을 확인한 뒤 도구를 이용,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공범 중 1명은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망을 보게 한 뒤 무전기를 이용해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빙집털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C(폐쇄회

경찰)을 설치돼 있지 않은 8층 이상 고층 아파트 빙집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아파트 주인을 눌러 빙집임을 확인한 뒤 도구를 이용,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공범 중 1명은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망을 보게 한 뒤 무전기를 이용해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빙집털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C(폐쇄회

경찰)을 설치돼 있지 않은 8층 이상 고층 아파트 빙집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아파트 주인을 눌러 빙집임을 확인한 뒤 도구를 이용,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공범 중 1명은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망을 보게 한 뒤 무전기를 이용해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빙집털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C(폐쇄회

경찰)을 설치돼 있지 않은 8층 이상 고층 아파트 빙집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아파트 주인을 눌러 빙집임을 확인한 뒤 도구를 이용,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공범 중 1명은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망을 보게 한 뒤 무전기를 이용해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빙집털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C(폐쇄회

경찰)을 설치돼 있지 않은 8층 이상 고층 아파트 빙집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아파트 주인을 눌러 빙집임을 확인한 뒤 도구를 이용,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공범 중 1명은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망을 보게 한 뒤 무전기를 이용해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빙집털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C(폐쇄회

경찰)을 설치돼 있지 않은 8층 이상 고층 아파트 빙집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아파트 주인을 눌러 빙집임을 확인한 뒤 도구를 이용,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공범 중 1명은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망을 보게 한 뒤 무전기를 이용해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빙집털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C(폐쇄회

경찰)을 설치돼 있지 않은 8층 이상 고층 아파트 빙집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아파트 주인을